

“악업은 또 다른 악업 부른다”

반전평화 불교대책위 조계사서 집회

반전평화선언·‘평화의 등달기’ 행사

전국 동시법회·파병반대 서명운동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진행되고 ‘인간방패’가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반전 평화 집회를 개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계 가연대 등 불교계 14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원회’는 27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반전 평화선언 및 평화의 등 달기’ 행사를 열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성관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장기 회장, 참여불교계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 등 불교계 단체 대표들은 행사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한

반도 전쟁의 서곡”이라며 침공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1부 기자회견에서 박광서 대표는 “자신이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악업은 또 다른 악업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 의장 성관스님도 ‘반전 평화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 미국의 대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파병 요청을 비롯한 전쟁지원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부 행사는 평화 후호 작성, 전쟁 반대 편지 낭독, 평화의 등 달기로 이뤄졌다.



◊ 불교대책위 관계자들이 평화의 등을 달고 있는 모습.

한편 불교대책위는 3월 중순 원로, 중진스님들과 일반 불자를 포함한 대규모 선언 운동인 ‘불교계 2차 반전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미국의 이

라크 침공 시 전국 규모의 동시 법회 개최 및 ‘전쟁중단 및 파병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도와주세요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는 도반을 돕기 위해 조계사청년회가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지켜보는 이들의

“간경화 투병 법우 수술비 마련하자”

조계사 청년회원들, 모금·일일차집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원들은 간경화에 걸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연옥(38·사진) 법우를 돕기 위해 법회를 통한 수술비용 모금, 일일차집 등을 개최하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가 1천여만원을 마련했지만 1억원이 넘는 수술비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계사청년회 봉사팀장으로 활동한 이 씨는 98년 출산 후유증으로 간

경화에 걸린 후 힘든 삶을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병세 악화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간 이식수술 외에는 별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상태. 그동안 병원비로 살던 집마저 넘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 청년회 커플인 남편 정현식 씨 역시 일일직 건설노동을 하던 산재를 당해, 이 씨는 현재 친정에 몸을 의탁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다. 연락처(019)312-5670.

강유신 기자

불교귀농학교 학생모집

26일~5월23일까지 교육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평화로운 삶, 귀농’이라는 주제로 제12기 불교귀농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3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 2층에서 열리는 불교귀농학교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7시에 시작된다. 참가비 개인8만원, 부부12만원. 문의:02737-6181 남동우 기자

사찰예산 5%이상 회향운동

인사 지킴·교단공직자 급여 표준안 마련

참여불교 재가연대

참여불교계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재가연대)가 올해 교단자정전략의 일환으로 사찰예산 5%이상 사회 회향운동, 승려 기본생활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재가연대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불교시민사회활동 지원 및 사찰자원활용 제도 마련, 중앙종회 입법 등을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또 주지인사 투명성 합리성 제고와 교단공직자의 급여 판공비 공분화를 위해 사찰유형별 인사표준지침과 교단공직자 급여 판공비표준안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불교생활윤리지침 개발 △불자윤리실천 서약운동 △교단

쇄신을 위한 출제가 공동작업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정책 제안-검증 활동 등을 통한 ‘4부대중 청정운동’을 펼친다.

또 인도 법당 및 학교건립과 불교 교재 보급을 위해 1억1천4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사)불교아카데미는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미디어 교육센터 건립 △미디어 교재 개발 △불교사회화 연구 및 인력양성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재가연대와 불교아카데미는 이를 위해 각각 1억9천3백여만원과 4억여 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올해의 재가불자상’으로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을 선정했다.(관련기사4면)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 지율스님 격려방문 28일 조계종 총무원장의 지시로 총무부장 선용스님과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등이 24일째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격려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계, 성금모금·자원봉사 ‘붐물’

대구지하철 참사 온정의 손길 이어져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들에 애도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추모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성금모금,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새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2월 20일 대구시민회관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천태종 1천만원, 진각종 1천만원, 동화사와 은혜사가 각 1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불교계 온정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하고 있다.

또한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등 지역불교계는 사찰 및 신도회 등과 합

계 유족돕기 성금모금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대구 서봉사, 영천 만불사 등은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무료로 봉안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구불교계 자원봉사단체인 불교사회복지회, 영남불교대, 대구경북포교사단,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 등은 사고 다음날인 19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무료급식, 열혈봉사,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민 애도의 날인 지난 23일에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대구 불교

계의 합동천도제도 있따.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합동으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천도제를 23일 지하2층 중앙로역 사내에서 봉행하고, 영남불교대학과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도 같은 날 대구지하철 희생자 천도법회와 위령제를 갖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 문의는 지하철화재사고수습대책본부(053-429-2923), 대구불교방송(053-427-5114), 대구 참사 아픔 나누기 성금접수 ARS 060-704-1004. 박원구 기자

새만금 살리기 한·독 심포지엄

6일까지 서울서, 양국학자 30명 참석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한국과 독일의 학자 30여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4일~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과 부안성당에서 ‘새만금 강행 발표, 그 이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상임 공동대표 수경스님이 환영사를 하며

문을 연다.

독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켈러만 박사의 특별강연에 이어 한국과 독일 30여명 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5일에는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방조제와 전시관을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진다. 문의:02735-7034

남동우 기자

북한산 도로 중단·새만금 등 재검토를

환경단체, 대통령에 촉구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맞춰 환경단체들이 친환경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는 2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산 수력산 불암산을 파괴하는 관동도로 건설은 미래세대를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인유하건설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녹색연합은 2월24일 “북한산관동도로, 천성산고속철도, 새만금간척사업과 사회화, 한탄강댐 건설 등 후보시설에 약속했던 환경현안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렉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서,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운불린 나눔 콜렉시
1588-5532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주 지 진 각

대 중 일 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 041)841-6221/ FAX 041)841-6222

기타 : 2003년 겨울선수권회 cafe.daum.net/makoksa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

조 실 진 제

주 지 지 성

총 무 진 담 기 획 법 률 교 무 선 문
재 무 상 원 사 회 승 언 포 교 진 오
호 법 고 경

금당선원 선원장 : 지환 승가대학 강 주 : 해월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053)982-0101/ FAX 053)985-4405

http://www.donghwasa.net